

CEO Report

Next Insurance (Ⅲ): ESG와 보험산업

변혜원·김동겸·손재희



CEO Report

CEO Report는 보험산업과 관련된 현안과제를 집중 분석하여 보험회사 최고경영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되었습니다.

이번 호는 한국 보험산업의 미래를 전망하고 향후 경영 및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Next Insurance” 세 번째 시리즈입니다.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의미하는 ESG는 기업의 가치, 이해관계자 가치, 사회의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비재무적 요소들이라고 할 수 있음. ESG는 2004년 UN Global Compact 보고서에서 처음 사용되었고, UN PRI를 계기로 그 개념이 확산되었으나, 최근 기업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과 자본시장에서의 ESG요소 영향력 확대, 관련 정부정책 변화로 인해 그 중요성이 커짐

따라서 보험회사도 이미 보유한 ESG리스크를 점검·관리하는 동시에 보험회사의 ESG이행 수준에 대한 소비자와 투자자의 높아진 기대 수준을 만족시키기 위해 명확한 ESG전략을 수립할 시점임. 이를 위해 보험회사는 위험관리와 자금공급이라는 주된 역할이행에 ESG요소를 통합함으로써 보험회사의 장기가치를 높이고 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을 지원해야 함

먼저 위험관리자로서는 우리 사회의 ESG리스크 경감을 위한 상품·서비스의 개발·제공을 검토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공·사 협력도 필요할 것임. 기후리스크 경감을 위해서는 ① 보험인수와 보험금지급 과정에서 기후변화 경감 행동을 유도, ② 탄소중립 이행사업의 위험을 보장, ③ 기후위험 예방·복구서비스를 제공하고, 방재대책 수립·수행에서도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임. 소외계층의 위험관리를 위해서는 ① 소규모 자영업자의 영업중단 손실 위험보장과 은퇴소득 확보를 위한 상품을 제공, ② 지방자치단체 등과 공조하여 저소득층을 위한 미소보험을 개발, ③ 플랫폼노동자의 근무 관련 위험, 소득불안정 위험, 은퇴소득 보장을 위해 공·사가 협력하여야 할 것임. 마지막으로 기업의 배상책임 위험 인수 시 지배구조 평가를 추가하여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할 수 있음

자금공급자로서 보험회사는 ① ESG평가를 투자결정에 반영함으로써 환경 및 사회적 문제에 기여하는 장기투자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② 탄소중립 관련 권고나 해외 보험회사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 사회에 적합한 장기투자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임

I

ESG의 중요성

-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의미하는 ESG는 기업의 가치, 해당 기업의 이해관계자 가치, 사회의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에 영향을 미치는 비재무적 요소들이라고 할 수 있음
 - 지속가능발전이란 미래세대의 니즈를 충족할 능력을 위태롭게 하지 않고, 현 세대의 니즈를 충족하는 발전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환경, 사회, 경제적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는 생각에 기초함
 - UN Global Compact가 자본시장에 ESG 이슈를 통합시키는 'Who Cares Wins 이니셔티브'를 위해 준비한 *Who Cares Wins: Connecting Financial Markets to a Changing World*라는 2004년 보고서에서 처음 사용되었음
 - 동 보고서는 금융시장 연구·분석·투자에 ESG요소의 통합 필요성을 제기하기 위해 다양한 금융시장 참여자에 대한 권고사항을 제시함
 - 2006년 기관투자자가 투자결정 시에 비재무요소인 ESG를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UN PRI (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가 마련되면서 ESG개념이 확산됨

〈그림 I-1〉 ESG 기준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자연자원 활용 탄소배출 에너지효율 공해·폐기물 재생에너지	근로자 인권 다양성 지역사회와의 관계 공급망(Supply Chain)관리 고객정보 보호	이사회 독립성·다양성 주주권리 경영자 보상 기업윤리

자료: OECD(2020)

- 최근 ESG가 각광을 받는 이유는 기업이 사회에 미치는 광범위한 영향에 대한 사회의 관심 증대, 관련 정부정책 변화, 자본시장에서의 ESG요소 영향력 확대 등에서 찾을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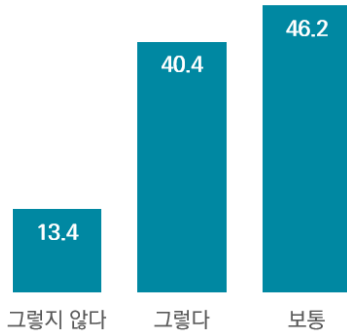
- 경제 불평등 악화, 환경문제로 인해 사람들은 외부비경제(Negative Externalities)를 고려하지 않은 단기 이윤극대화에 대한 회의와 반성을 하게 됨
 - 기업들도 주주가치 창출에 더하여 고객가치 제공, 근로자에 대한 투자, 공급자에 대한 공정하고 윤리적 대우, 지역사회 지원 등을 기업의 역할로 인식하기 시작함
- 자신의 가치관이나 윤리관에 기초하여 소비를 하는 의식 있는 소비(Conscious Consumption)나 윤리적 소비(Ethical Consumption)도 늘어나고 있음
 - 더욱이 사회정의, 부정부패, 환경문제 등 사회이슈에 관심이 많은 MZ세대가 20·30대 소비자로 성장하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기업이 사회를 위해 점점 더 큰 역할을 수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Net-Zero)¹⁾ 목표 이행을 위해 기후 관련 공시 등 환경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금융감독에 기후리스크를 반영하기 시작함
 - 국내 금융감독당국은 그린뉴딜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녹색금융 추진 TF를 출범하고 기후리스크 평가, 기업공시 개선 등 세부방안을 마련 중에 있음
 - 유럽집행위원회는 2018년 지속가능금융 행동계획 발표에 이어, 올해 4월 금융자금 흐름을 지속가능한 활동으로 유도하기 위해 지속가능금융패키지를 채택함(EC 2021. 4. 21)
 - 지속가능금융패키지는 EU 녹색 분류체계 기후 위임법률,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지침안, 지속가능성 선호, 수탁자의무, 상품관리 관련 위임법률개정안들을 포함함
 -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는 탄소집약적 기업 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 상향 등 건전성감독에 기후 리스크 반영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도 보험회사 감독에 있어서 기후 관련 리스크를 반영할 것을 권고함
- 한편 투자 시에 ESG요소를 고려하는 지속가능투자(Sustainable Investment) 규모가 커지고 있는데, 사회·소비자, 규제환경의 변화가 기업가치에 미칠 영향을 고려할 때 투자결정에 있어서 ESG요소는 더욱 중요해질 것임
 - 아울러 머신러닝, 자연언어처리기술 등 데이터분석 기술 발전으로 인해 투자자들은 기업의 자발적 ESG 공시자료 외에 ESG 관련 정보를 집적, 분석함으로써 의사결정의 시의적절성과 정확성을 개선하고 있음

1) 탄소중립(Net-Zero)이란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고 남은 온실가스는 흡수하거나 제거하여 순배출을 영(零)으로 만드는 것임

〈그림 I-2〉 사회·환경적 영향을 고려한 소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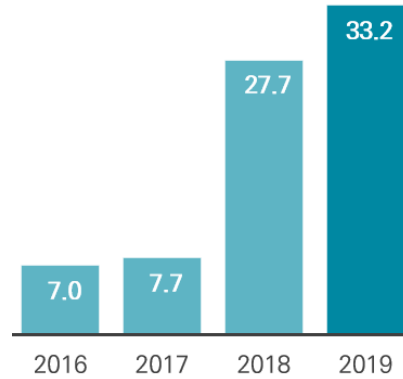
“코로나 이전 대비 상품구매 시 가격과 품질 외에 소비행위가 사회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게 되었다”



주: 국내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함
자료: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2021. 6. 21), “코로나시대 소비 행태 변화와 시사점 조사”

〈그림 I-3〉 국내 지속가능투자 자산규모

(단위: 조 원)



주: 지속가능투자는 사회책임투자(Socially Responsible Investing: SRI), ESG투자 등으로도 불림
자료: 한국사회투자책임포럼·모닝스타(2020)

- 보험회사는 회사 내 보유한 ESG리스크를 점검·관리하는 동시에 보험회사의 ESG이행 수준에 대한 소비자와 투자자의 높아진 기대 수준을 만족시키기 위한 명확한 ESG전략을 수립할 시점임
 - 보험회사는 위험관리와 자금공급 시 노출된 ESG리스크를 적절히 관리하지 않으면 개별 사업부문의 지급보험금이 증가하거나 보험회사 투자자산가치가 하락할 수 있음
 - 한편 소비자와 투자자는 보험회사가 위험관리, 위험인수, 투자를 통해 사회의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할 것을 기대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대를 충족하는 보험회사의 상품을 구매하거나 그러한 보험회사에 투자할 것임
- 이를 위해 본고는 보험회사의 ESG리스크와 보험회사 ESG이행에 대한 기대 변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보험회사의 과제를 위험관리와 자금공급이라는 핵심역할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함

II

ESG가 보험회사에 미치는 영향

1. 기존 사업모형의 리스크

- 보험회사는 위험관리와 자금공급 기능을 수행하면서 직·간접적으로 ESG리스크에 노출됨
 - 환경, 사회, 지배구조 리스크가 직·간접적으로 보험사고 발생가능성을 높임으로써 개별 보험회사가 보유한 상품포트폴리오에 따라 보험영업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보험회사가 투자한 기업이나 산업 또한 ESG리스크에 노출되므로, 해당기업이나 산업의 ESG리스크 관리 수준·성과에 따라 보험회사의 투자영업성과가 결정됨

〈그림 II-1〉 보험회사의 사업모형과 ESG리스크

	자산	부채	
자금공급/투자금 회수	(산업·기업 대상 투자·대출)	(보험상품 포트폴리오)	위험인수/보험금 지급
ESG Risk	◦ 농어업	◦ 재해보험, 근로자재해보장보험	ESG Risk
(기업·산업) ← →	◦ 제조업	◦ 건강보험	← → (피보험자)
기업성과	◦ 서비스업	◦ 배상책임보험	사고발생
	◦ 신재생에너지 산업		
	◦ 인프라투자	자본	

가. 위험관리

- 환경, 사회, 지배구조리스크를 적절히 관리하지 않을 경우 해당 요인들이 보험회사의 개별 사업부문의 지급보험금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 재물보험, 배상책임보험의 실적 악화가 예상되며, 재보험이나 건강보험 부문에서의 영향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임

○ 기후위기에 대응하지 않으면, 자연재해, 생태계 변화, 개인의 건강·소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해당 위험을 인수한 보험산업도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음(LANCET 2019; 이승준 2019; Society of Actuaries 2020)

- **(재해)** 지구온난화로 기후 변동성이 확대되고 재해위험도 커지고 있어, 자연재해로 인한 보험회사 손실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
- **(배상책임)** 환경 관련 사고가 발생한 경우, 원인분석 이후 행위 발생주체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과할 가능성도 있음
- **(건강)** 기후변화는 자연재해로 인한 인명피해, 질병발생 및 사망 등 개인의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쳐 건강보험의 보험금 지급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음
 - 이상기온은 온열질환, 신장질환, 신뇌혈관질환, 알레르기, 정신질환과 유의한 연관성을 보이며, 온도상승과 강우패턴의 변화는 매개체 전염병, 수인성 전염병 확산에 영향을 미침

〈표 II-1〉 보험회사 사업부문별 ESG리스크 요인

구분	평가항목	재물	건강	배상책임	날씨
환경 (E)	자연자원 활용 탄소배출 에너지효율 공해·폐기물 재생에너지	자연재해, 건설	상해, 질병, 사망	환경배상	기후보험
사회 (S)	근로자(직장안전) 인권, 다양성 지역사회와의 관계 공급망관리 고객정보 보호	-	상해, 질병	제조물배상 책임, 사이버, 근로자재해 보장책임	-
지배구조 (G)	이사회 독립성·다양성 주주권리 경영자 보상 기업윤리	-	-	임원배상책임 (D&O)	-

○ 근로안전보건, 고객정보보호, 공급망 관리 등 사회위험이 통제되지 않을 경우 근로자재해책임보장보험, 배상책임보험, 사이버보험 등에서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

- **(노동환경)** 기업 차원에서의 근로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사전 예방조치, 근로자 건강관리는 산업재해사고와 직결됨
- **(공급망관리)** 기업들이 생산·조립·공정 과정에서 다수의 업체들과 협력하고 있어, 해당업체들의 노동권, 환경보호 관리가 소홀할 경우 배상책임이 발생하거나 기업평판이 하락할 것임
- **(고객관리)** 산업 전반에 걸쳐 디지털기술 활용이 늘어나면서 개인정보 유출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있음

- 건전한 지배구조가 갖춰지지 않아 임원의 부당행위나 그릇된 의사결정으로 주주나 제3자에게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입힐 경우, 임원배상책임보험의 지급보험금이 증가할 수 있음
 - 최근 주주행동주의 확산, ESG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대로 기업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임원에 대한 소송위험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나. 자금공급

- 보험회사가 투자한 기업이나 산업의 ESG리스크는 기업가치 변동을 통해 보험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예를 들어, 기후변화로 인해 실물부분에서 발생한 직·간접적인 물리적 피해는 투자·대출 관계를 통해 금융부문으로 파급되며, 저탄소경제로의 이행과정에서 화석연료·탄소배출 산업의 가치가 하락하면서 해당 산업에 투자한 금융기관은 투자손실을 볼 수 있음(TCFD 2017)

〈표 II-2〉 ESG이슈가 기업 가치평가에 미치는 영향 사례

환경	사회	지배구조
• 이슈: 기후변화와 탄소배출 • 가치평가리스크: 미래 규제 및 세금	• 이슈: 지역공동체와의 관계 • 가치평가리스크: 사회트렌드 예측실패 (예: 식품회사가 비만에 대한 염려와 일치하는 혁신에 실패하는 경우)	• 이슈: 경영자 보상 • 가치평가리스크: 부적절한 보상구조가 야기한 잘못된 장기 의사결정
• 이슈: 대기오염, 수질오염 • 가치평가리스크: 벌금	• 이슈: 근로기준 • 가치평가리스크: 평판 손상	• 이슈: 공시 • 가치평가리스크: 인지된 ESG리스크 공시의 누락으로 인한 소송위험
• 이슈: 폐기물관리 • 가치평가리스크: 생산비용	• 이슈: 건강 및 안전 기록 • 가치평가리스크: 중대 사고나 조업중단	• 이슈: 세금전략 • 가치평가리스크: 세금환수, 소비자 보이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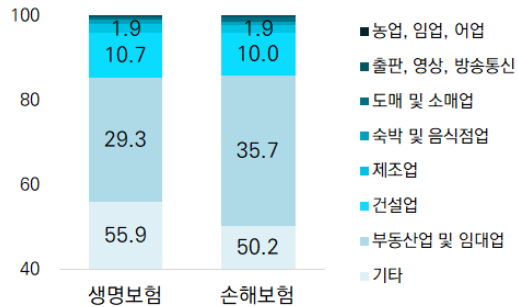
자료: OECD(2017)

- 기업의 ESG경영 유도를 위한 금융정책 및 산업정책 제도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어, 현행 보험산업의 자금중개 및 산업투자방식으로 수익을 확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국내 보험회사들은 수익성이나 자산·부채 매칭 관점에서 자산운용을 하고 있으나, 상당수는 ESG리스크나 지속가능투자에는 관심이 적은 것으로 판단됨
 - 국내 보험산업의 업종별 대출 비중을 보면 주로 부동산 및 임대업, 개인대출 등이 상당부분을 차지함
 - 최근 일부 보험회사에서 친환경(신재생에너지, 수자원, 녹색채권 등) 및 친사회적(학교시설, 문화시설, 사회적채권(Social Bond) 등) 투자를 늘리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미미한 수준임

〈그림 II-3〉 보험산업의 사회적 책임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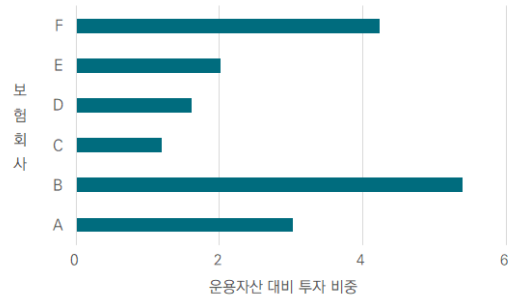
(단위: %)

(단위: %)



주: 20년 말 기준임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주: 19년(A, B), 20년(B, C, D, E) 기준 친사회·환경 투자액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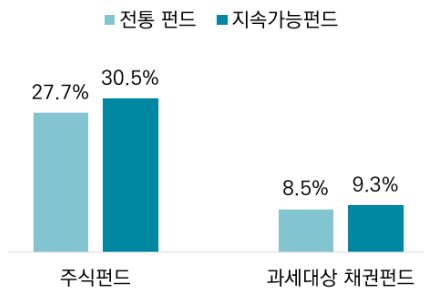
자료: 각 사 가능경영보고서

- 더욱이 과거에는 단기적 손실을 감내하더라도 장기적 관점에서 ESG투자를 해야 한다는 인식이 일반적이었으나, 최근 들어 ESG투자가 수익성 측면에서도 도움이 된다는 결과가 제시됨
 - Morgan Stanley(2020)에 따르면, 중위 투자수익률 기준으로 지속가능 펀드가 전통적인 펀드보다 수익률이 높았으며, 2020년 상반기 코로나19로 인한 수익률 하락 폭도 전통적인 펀드에 비해 작았음

〈그림 II-4〉 미국 내 지속가능펀드와 전통적 펀드 투자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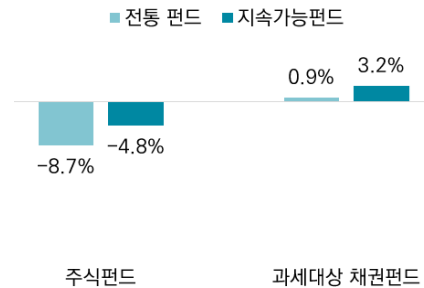
〈2019년〉

〈2020년 상반기〉



주: 중위 투자수익률임

자료: Morgan Stanley(2020)



2. 보험회사의 역할 변화

- 지구온난화 심화로 기후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대재해 위험도 커지고 있어 기후리스크 측면에서 보험 회사의 위험관리자로서의 역할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
 -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는 가축의 전염병, 글로벌 감염병 확산, 폭염, 미세먼지 피해 등 사회재난으로 이어져 위험이 복잡해지고 피해규모도 대형화하는 추세임
 - 국내 대재해 피해지원은 주로 재난지원금과 재난정책보험 등 국가지원으로 이루어지는데 향후 피해액과 복구금액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정부의 예산지원만으로는 한계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 전문가들은 보험회사가 위험관리자로서 다양한 잠재적 기후변화 관련 위험평가를 수행하고, 기후리스크에 대응하는 신기술이나 사업모형 개발을 돕는 보험상품도 개발하여야 한다고 지적함(Ceres 2020)
- 향후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의 보장공백을 채우는 보험회사의 역할에 대한 필요가 증가하고 있음
 - 경제 양극화로 인한 소외계층의 증가, 경제·사회 환경의 변화로 인해 새롭게 등장하는 직업군에 대한 사회안전망의 부재가 사회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함
 - 우리나라는 소득이 비슷한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비임금근로자 비율이 월등히 높고, 임금근로자 중에서는 비정규직의 비율이 높다는 특징을 가짐(장근호 2019)
 - 한편 임금노동과 자영업의 혼합적 성격을 가진 플랫폼노동이 증가하고 있는데,²⁾ 기존 임금노동에 비해 근로시간이나 일거리의 유연성은 크지만, 불안정한 일거리, 열악한 노동조건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김은경 2020. 3. 18)
- 한편 과거부터 지배구조는 기업의 의사결정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가졌으나, 최근 들어 보험 회사 등 기관투자자들이 더 적극적으로 투자대상의 건전한 지배구조를 유도해야 한다는 사회적 기대가 높아지고 있음
 - 환경이나 사회 관련 요소의 중요성은 개별 회사가 속한 산업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기업 지배구조는 모든 기업에게 중요한 과제임
 - 기업의 의사결정에 환경 및 사회 관련 요소를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서 최고경영자(CEO)의 독단적 의사결정이나 오류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견제하는 이사회 역할의 중요성이 더욱 중요해짐
 - 각 기업이 공정하고 투명한 의사결정 체계를 확립하고,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임원보상체계 등 주주와 기업 간 이해가 상충될 사안에 대해 공정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함

²⁾ 장지연 외(2020)는 플랫폼노동을 ①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고객이나 일거리를 구하여 노동을 제공하고, ② 플랫폼을 통해 노동의 대가를 받고, ③ 플랫폼에서 연결되는 일거리가 불특정 다수에게 열려 있는 노동으로 정의함

III

보험회사의 ESG경영 과제

- 보험회사는 위험관리와 자금공급이라는 주된 역할이행에 ESG요소를 통합함으로써 보험회사의 장기 가치를 높이고 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을 지원해야 함
 - **(위험관리)** 계약자의 ESG리스크 경감행동을 유도하거나, ESG리스크 경감사업의 위험을 인수하거나 장기적으로 ESG리스크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보장공백을 메우는 상품·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임
 - **(자금공급)** ESG측면에서 보유자산 포트폴리오를 점검·관리하고, 기업·산업의 ESG경영 이행정도를 고려하여 투자함으로써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1. 위험관리: 보험상품 및 서비스

가. 환경

- 먼저 보험회사는 보험인수와 보험금지급 과정에서 기업이나 가계의 기후변화 경감 행동을 유도할 수 있음
 - 탄소중립 이행에 대해 보험료 할인을 제공하거나, 탄소배출 또는 기후변화 유발 사업 관련 위험인수를 줄여나갈 필요가 있음
 - 보험금지급 시에도 고객이 친환경 재건축을 하거나, 폐기물을 줄이고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순환 경제(Circular Economy) 부품을 사용하여 자동차를 수리하도록 도움으로써 소비자의 행동변화를 유도할 수 있음
- 다음으로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 탄소중립 이행사업의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설립·운영에는 다수의 이해관계자들과 사업단계별 복잡한 리스크가 얹혀 있는데, 보험회사는 조립건설보험(Erection and Construction All Risk Insurance), 배상책임보험 등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이행을 도울 수 있음
 - 일반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사업 관련 리스크 수준은 높으므로, 보험회사 간 또는 공·사 간 협력이 필요함
- 아울러 기후위험에 대한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해 위험예방 서비스와 복구서비스를 제공하고, 지방자치단체나 정부 등과 함께 방재대책 수립 및 수행 부문에서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임

나. 사회

- 생산성이 낮은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국내 상황을 고려할 때(장근호 2019), 보험회사는 소규모 자영업자의 영업중단 손실 위험을 보장하거나 은퇴준비를 위한 상품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 현재 보험회사가 기업휴직보험을 통해 제공하고 있는 영업손실 범위를 공·사 협력을 통해 확대 인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한상용·문혜정 2021)
 - 자영업자의 공적연금과 퇴직연금 가입률이 낮은 점을 감안할 때, 단기적으로는 제도실효성 차원에서 별도의 제도 운영보다는 근로자에 준하는 세제혜택 부여를 통해 사적연금 가입 활성화가 바람직함
 - 미국의 키오계획(Keogh Plan)나 독일의 뤼롭연금(Rürup-Rente)이 자영업자에 특화된 개인연금을 별도로 운영하는 사례임(류건식·강성호·김동겸 2017)
- 현재도 보험회사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소액보험사업에 상품을 제공하고 있으나, 저소득층의 리스크보장 니즈조사를 바탕으로 미소보험(Microinsurance)을 개발하고, 보험료지불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공조도 필요할 것임
 - 미소보험은 위험의 발생 가능성과 관련 비용에 비례하는 보험료를 받고 특정한 위험으로부터 저소득층을 보호하는 상품임
 - 우리나라의 소액보험사업은 서민금융진흥원이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지원하는 형태의 정책적 사업으로서 일반적인 미소보험과는 다소 차이가 있음³⁾
 - 아울러 피보험자가 소액의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하여 리스크관리에 노력하도록 유도해야 하며, 보험회사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리스크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제공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특히 디지털기술의 발전은 지불 가능한 보험료 수준과 모바일기술을 통해 제공 가능한 건강서비스 측면에서 미소보험 개발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사회보장에서 소외될 수 있는 플랫폼노동자의 근무 관련 위험, 소득불안정 위험, 은퇴소득 등을 보장하기 위해 공·사가 협력하여야 할 것임
 - 해외에서는 임금노동자의 범주를 넓게 잡아 플랫폼노동자를 임금노동자에 편입시키거나(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와 같이 플랫폼노동자를 위한 보호입법을 마련하기도 하였음(장지연 외 2020)
 - 단기적으로 위와 같은 제도 도입이 어렵다면, 우선 보험회사가 디지털사회보장(DSS)방식을 준용하여 플랫폼노동자의 소득안정 또는 은퇴소득보장을 위한 상품을 제공하는 안을 고려하되, 정부와 함께 플랫폼 노동자에게 가입유인을 제공하기 위한 방안도 고민해야 할 것임
 - Weber(2019)는 플랫폼노동자가 과업을 마칠 때마다 노동자의 계정에 보수의 일정 비율을 송금하는

3) 휴먼예금관리재단이 2008년부터 소액금융을 지원했는데, 2016년에 미소금융중앙재단 업무가 서민금융진흥원에 인계됨. 저소득층 아동보험, 서민자립지원보험, 지역아동센터보험, 노인복지시설보험, 장애인 복지시설보험, 단체신용상해보험 등이 있음

디지털 체계를 플랫폼에 도입하고 적용된 보험료는 일정 주기로 플랫폼노동자의 거주국가의 사회보장 체계로 이체하는 DSS제도를 제안한 바 있음

다. 지배구조

- 보험산업은 배상책임보험을 통해 기업 경영과정에서의 오류, 지배구조 개선 등을 유도할 수 있음
 - 임원배상책임보험은 기업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임원에 대한 소송위험을 보험회사가 인수하는 형태로, 기업의 ESG리스크 확산은 배상책임보험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 보험회사는 시장위험과 기업고유의 위험을 보험료로 계량화하거나 기업평가를 통해 인수심사 과정을 거치는데, 적절한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할 수 있음

2. 자금공급: ESG투자

- 우선 보험회사는 현재 보유한 자산의 ESG리스크를 점검하고 이를 고려하여 자산포트폴리오를 조정해야 할 것임
 - ESG리스크 노출이 큰 투자처를 배제하거나, 이미 투자한 경우 투자회수(Divestment)를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무기, 석탄, 담배, 화석연료, 주류, 도박, 성차별적인 이사회 구성을 가진 기업에 대한 투자를 피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음
- 시장에서 ESG의 영향력 확대가 가져올 기회를 활용하고 사회의 지속가능발전에 더 적극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투자결정 시 ESG요소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거나 ESG반영 유도를 위해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음
 - 금융회사가 각 기업의 지속가능한 자원 및 기술 보유수준이나 ESG성과지표에 따라 자금공급 방식을 차별화함으로써 사회의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할 수 있음
 - 해당 산업에 다른 기업에 비해 더 나은 ESG이행수준이 높은 기업을 선호하여 투자하는 방법 (Best-in-class Selection)이나 그린채권, 사회적채권(Social Bond), 미소금융펀드(Microfinance Fund) 등 ESG주제에 기초한 투자(Thematic Investing)도 가능함
 - 적극적인 주주권(Active Ownership) 행사를 통해 투자를 받는 기업의 ESG이행을 유도할 수 있는데, 위임투표를 활용하거나 투표나 참여를 위한 타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성할 수도 있음
- 한편 보험회사는 관련 기관들과 함께 탄소배출권 거래시장과 같이 ESG가치를 자본화하고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을 조성하여 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을 도울 수 있음

- 다만, ESG투자나 ESG가치 거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ESG공시나 ESG등급의 비교가능성과 투명성 제고 등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함
 - ESG이행 평가방법이 발전하고 있으나, ESG투자에 대한 정의나 공시체계가 달라 평가기관에 따라 등급이 크게 다른 현상도 나타나 ESG이행 평가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진행 중임(OECD 2020)
- 아울러 ESG요소 고려를 통해 지속가능발전을 지원하는 협의체의 권고나 해외 보험회사들의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 사회에 적합한 ESG경영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임
 - UNEP(UN Environment Programme) 산하 PSI(Principles for Sustainable Insurance)의 원칙, 권고를 참고할 만함
 - PSI는 2012년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UN 회의에서 시작된 UN과 보험산업 간 협력 이니셔티브로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보험산업의 리스크관리자, 리스크인수자, 투자자로서의 기여강화를 목적으로 하는데, 국내 몇몇 대형보험회사들도 동 이니셔티브에 참여하고 있음
 - 7개 글로벌 대형 보험회사와 재보험회사(AXA, Allianz, Aviva, Munich Re, SCOR, Swiss Re, Zurich Insurance Group)는 UNEP와 함께 탄소중립경제로의 이행지원을 목적으로 NZIA(Net-Zero Insurance Alliance) 설립을 준비 중임(UNEP's PSI 2021. 4)

〈표 Ⅲ-1〉 보험회사의 ESG경영 과제

구분		세부목표	주요과제	제도개선
위험 관리	환경	기후변화 경감 유도	- 보험인수·보험금지급 과정에서 기후변화 경감을 유도 - 탄소중립 이행사업 관련 위험보장 상품 제공 -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위험 예방·복구 서비스 제공	방재대책 수립·수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정부와 협력 필요
	사회	사회안전망 확대에 능동적으로 기여	- 영세 자영업자의 영업중단 손실 위험 보장과 사적연금상품의 다양화 및 지원 확대 - 디지털 사회에 새로이 등장하는 노동자의 직업위험, 건강위험 관련 상품 서비스 제공	- 공·사 협력을 통한 미소보험 개발 - 플랫폼 노동자의 은퇴소득 확보를 위한 제도 도입
	지배 구조	기업의 건전한 지배구조 유도	기업위험 인수 시 지배구조 평가를 추가하여 기업지배구조 개선 유도	기업지배구조 관련 평가기준의 비교가능성, 일관성, 투명성 개선
자금공급		환경·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장기투자	- ESG리스크를 고려한 자산포트폴리오 조정 - 투자결정 시 ESG요소 적극 반영, ESG이행 유도를 위한 주주권 행사 - ESG가치 자본화 및 거래시장 조성에 기여	ESG 공시의 비교가능성, 일관성, 투명성 개선

부록 I

주요 용어

용어	내용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Stakeholder Capitalism)	- 기업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주주의 이익뿐만 아니라 고객, 근로자, 공급자, 지역사회 등의 장기적 가치를 고려해야 한다는 개념 - 주주 자본주의(Shareholder Capitalism)와 대비되는 개념
지속가능발전 (Sustainable Development)	- 미래세대의 니즈를 충족할 능력을 위태롭게 하지 않고, 현 세대의 니즈를 충족하는 발전(The 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1987) - 이후 경제발전, 사회발전, 환경보호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발전
지속가능발전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17개 목표 - 인간, 지구, 번영, 평화, 파트너십이라는 5개 영역에서 인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 목표로 제시 2015년 제70차 UN총회에서 2030년까지 달성하기로 결의
지속가능금융 (Sustainable Finance)	- ESG요소를 고려하여 투자결정을 내리는 과정 - 지속가능한 경제활동과 사업에 더 많은 장기투자를 하는 결과 유도
지속가능투자 (Sustainable Investment)	- ESG요소를 고려하는 투자 - ESG투자, 사회적책임투자(SRI) 등과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하는데, SRI는 주로 외부비경제 유발 투자활동을 배제하는 접근방식임
ESG투자 (ESG Investing)	위험을 경감하고 성장기회를 식별하기 위해 ESG요소를 사용함으로써 장기가치를 개선하는 투자
UN Global Compact	-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기업시민의식 향상을 목적으로 기업이 인권, 노동, 환경, 반 부패 분야 10대 원칙을 기업의 의사결정에 반영하도록 지원하는 이니셔티브 1999년 Cofi Annan UN 사무총장이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서 제안하였고, 2000년 뉴욕 UN본부에서 출범
UN PRI (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	2006년 UNEP FI(UN Environment Plan Finance Initiative), UN Global Compact가 전 세계 주요 기관투자자들과 구성된 책임투자 네트워크 - PRI가 제시하는 책임투자원칙은 총 6개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투자분석·결정에 ESG요소를 고려하도록 함

참고문헌

- 김은경(2020. 3. 18), 「기술혁명시대의 新노동자, 플랫폼 종사자」, 『이슈&진단』, 경기연구원
- 류건식·강성호·김동겸(2017), 『자영업자를 위한 사적소득보장체계 개선방안』, 연구보고서 17-5, 보험연구원
- 이승준(2019), 『기후변화 위험과 보험회사의 대응방안』, CEO Report, 보험연구원
- 장근호(2019), 「우리나라 고용구조의 특징과 과제」, 『경제분석』, 제25권 제1호, 한국은행
- 장지연·이호근·조임영·박은정·김근주·Enzo Weber(2020), 『디지털 시대의 고용안전망』, 노동연구원
- 한국사회투자책임포럼·모닝스타(2020), 『걸어온 길, 가야할 길: 한국 사회책임투자 시장현황 및 전망 2019』
- 한상용·문혜정(2021), 『팬데믹으로 인한 영업중단 리스크 관리에 대한 연구』, 이슈보고서 21-06, 보험연구원
- BIS(2020), *The Green Swan – Central Banking and Financial Stability in the Age of Climate Change*
- Ceres(2020), *Addressing Climate as a Systemic Risk: a Call to Action for U.S Financial Regulators*
- European Commission(2021. 4. 21), *Sustainable Finance Package*
- Global Sustainable Investment Alliance(2018), *Global Sustainable Investment Review*
- IAIS(2021), *Application Paper on the Supervision of Climate-related Risks in the Insurance Sector*
- LANCET(2019), *The 2019 Report of The Lancet Countdown on Health and Climate Change: Ensuring that the Health of a Child Born Today Is Not Defined by a Changing Climate*

MorganStanley(2020), *Sustainable Reality*

OECD(2017), *Investment Governance and the Integration of ESG Factors*

_____(2020), *ESG Investing: Practices, Progress and Challenges*

S&P Global(2019), *The ESG Risk Atlas: Sector And Regional Rationales And Scores*

Society of Actuaries(2020), *Climate Change and Environmental Risks*

TCFD(2017), *Recommendations of the 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

The Global Compact(2004), *Who Cares Wins: Connecting Financial markets to a Changing World*

The 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1987), *Our Common Future*

UNEP's PSI(2021. 4), "World's Leading Insurers and Reinsurers and UN Environment Programme to Establish Pioneering Net-Zero Insurance Alliance"

Weber(2019), "Digital Social Security: Outline of a Concept for the 21st Century", *Working Paper Forschungsförderung*, No. 138

서민금융진흥원(<https://www.kinfa.or.kr/contentsPage.do>)

저자약력

변혜원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경제학 박사 / 연구위원(총괄)
E-mail : hw.byun@kiri.or.kr

김동겸 성균관대학교 경영학(재무) 박사 / 연구위원
E-mail : dgkim@kiri.or.kr

손재희 University of California, Riverside 경제학 박사 / 연구위원
E-mail : jaehee.son@kiri.or.kr

CEO Report 2021-09호

Next Insurance (Ⅲ): ESG와 보험산업

발행일 2021년 8월

발행인 안철경

발행처 보험연구원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38 화재보험협회빌딩

인쇄소 경성문화사

